

KR-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곳

철도공단 추석명절맞이 사랑의 도시락 지원

- 명절의 풍성함을 소외 이웃과 함께 -



공단은 지난 5일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 포장 봉사활동 및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한 끼를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의 노인과 장애우들에게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작은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행사 외에도 8일까지 임원진 및 노조위원장이 릴레이로 나자렛 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철로변 불우 아동과 KR소년단 등 50세대에 총12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하였다. <관리본부 정지은 기자>

추석명절 맞이 행복한 나눔사랑실천

강원본부(본부장 이육성)는 지난 8일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받는 무의탁, 독거 노인들의 공동생활터인 '안나의 집' 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의 집' 을 찾아 난방유 및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다. 지난 겨울 봉사활동 후 다시 방문한 '안나의 집'에는 벌써부터 아침저녁으로 추운 강원도 날씨를 감안하여 난방유 400리터를 전달하였다. 할머니들께서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며 '다시 찾아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손수 마련해주신 차와 과일을 먹으며 따뜻한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처음 지원하게 된 장애인복지시설 '천사의 집'에는 기저귀와 세제 등 4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강원본부 김충섭 기자>



해외사업본부, 추석명절맞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동화책' 기증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김선호)는 지난 8일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관장 김봉구, 대전시 중구 은행동 소재)을 방문, 직접 구입한 모국어 동화책을 다문화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다문화도서관 설립이래 최초로 기증된 모국어 동화책은 중국어·영어(필리핀)·캄보디아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국어 48권으로 이주외국인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녀들과 한국어 동화책 또는 영상물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던 이주외국인 부모들은 공단의 모국어 동화책 기증소식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매우 기쁜 추석선물을 받았다고 즐거워하였다. 해외사업본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하는 철도체험캠프 등 본부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사업본부 김성훈 기자>



남해의 파라다이스, 거제도

13개의 해수욕장으로 사랑받는 거제도 다이내믹한 물놀이에서 정적인 파도소리까지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규모에 걸맞게 거제도 해안에는 13여 개의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여름철이면 피서지로 각광받는다. 거제시의 중심가 가운데 하나인 옥포동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덕포해수욕장, 흥남해수욕장, 농소물놀이해수욕장, 황포해수욕장, 물안(열개)해수욕장이 피서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남쪽에는 와현모래숲해변, 구조라해수욕장, 학동흑진주물놀이해변, 함복해수욕장, 여차물놀이해수욕장, 명사해수욕장, 덕원해수욕장 등이 포진해있다. 이용객 숫자를 비교해보면 인근에 여행명소가 많은 남부의 해변들이 북부의 해변들에 비해 더 북적거리는 편이다. 덕포해수욕장은 해변 길이가 450m이며 고운 모래와 맑고 깨끗한 물, 완만한 경사도, 주위에 어우러진 천년 해송을 자랑한다. 거가대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소물놀이해수욕장은 해변 길이가 2000m나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수욕장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다. 모래 대신 세알처럼 둥글고 작은 몽돌이 해변을 덮고 있어 찜질을 즐기기에 좋다. 해변 남쪽에 들어선 자그마한 포구로 이동하면 거가대교의 위용이 눈에 들어온다. 그밖에 흥남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도, 고운 모래질이 특징이며 황포해수욕장은 잔잔한 호수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칠천도라는 섬에 있는 물안(열개)해수욕장은 가족 단위로 호젓한 피서를 즐기기에 좋다. 옥포동에서 14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와현모래숲해변이다. 이어서 구조라해수욕장을 지난다. 해변의 길이는 1030m로 와현에 비해 두 배 정도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바나나보트 등의 해변레포츠 체험이 가능하며 편의시설 규모도 와현과 비슷하다. 구조라를 지나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학동흑진주물놀이해변과 팔색소의 도래지인 학동물백송이 기다린다. 학동흑진주물놀이해변의 몽돌들은 흑진주빛을 발하면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명상음악을 선사한다. 몽돌밭에 앉아 파도와 자갈이 빚어내는 음악을 감상하고 있으면 도심에서 얻은 근심이 차분하게 바다 속으로 침잠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레일&뉴스 유정우 기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본부 인력운영처 이명환부장 빙모상 - 발인 : 2011년 9월 5일 ■ 전기사업단 신호제어처 장석근처장 모친상 - 발인 : 2011년 9월 5일 ■ 관리본부 정보관리처 지옥배부장 빙모상 - 발인 : 2011년 9월 7일 ■ 역세권개발사업단 김대환차장 조모상 - 발인 : 2011년 9월 7일 ■ 일반철도처 중부본부 정철상부장 모친상 - 발인 : 2011년 9월 9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본부 열차계획처 나석주부장 장모상 - 일시 : 2011년 9월 17일(토) 12시 30분 - 장소 : 국방회관 ■ 수도권본부 건설2처 서상삼사원 결혼 - 일시 : 2011년 9월 17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강원웨딩문화센터 ■ 건설본부 건축/기저처 박익홍부장 장녀혼 - 일시 : 2011년 9월 18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W웨딩 (서울 중랑구 목1동 175-1) ■ 수도권본부 건설1처 김만일차장 장녀혼 - 일시 : 2011년 9월 18일(일) 오후 1시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
|--|--|

나누는 心, 쌓이는 情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성)는 지난 5일 추석명절을 맞아 밀알복지관에서 장애우분들을 위한 추석음식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행사를 위한 봉사활동이 있다는 소식을 라니스를 통해 접하고 지원을 하였다. 이곳에 오기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기대가 되었다. 봉사활동이 있는 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밀알복지관에 도착하니, 교회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벌써 함께 음식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담당한 음식은 동그랑땡, 찜닭을 잡아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평소 애용하지 않던 음식이라 그런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부침기를 1시간, 2시간... 처음에는 생소한 일이라 신나게 했지만 점차 기를 넣는데 머리로 아프고 정신이 없어 그만두고 싶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옆을 보니 함께 오신 차장님들과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의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피를 내어쉬려고 하였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힘을 내어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4시간여가 흐른 뒤 3개의 채반 가득 완성된 동그랑땡이 푸짐하게 쌓여 있었다. 이제 배달을 해야 할 차례. 우리는 판매장에 살고 계시는 장애우 분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나눠드리기 이동하였다.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혼자 방문해보라고 하셨을 때 나도 모르는 편견에 조금은 무서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첫 방문을 하였다. 첫 방문자는 지체장애 1급이신 장애우분이였다.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을 해 얘기를 나누고 하니 웬지 모를 느낌이 마음이 찡하였다. 내가 그분께 정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으로 두려워했던 내게 그분은 많은 마음을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방문을 하면서 느낀 넘치는 정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는 길은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였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박 겉 핇기' 아닌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가치' 실천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직원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졌으며, 나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실천하고, 그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정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충청본부 구도연 기자>

또 하나의 해피바이러스, 볼링대회 그 현장 속으로

- 충청본부장님과 함께 한 볼링대회 -

이양성 충청본부장님의 볼링번개 제안으로 8월의 마지막 날 분주했던 하루일과를 끝마치고 가까운 볼링장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부서가 다르고 업무에 바빠 자주 보지 못하고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어색함도 잠시 레인을 나누고 볼링게임이 시작되자 서로 응원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직장동료가 아닌 이웃사촌 같은, 친구 같은 분위기 속에 게임은 계속 되었다. 볼링을 자주 하는 사람도 볼링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실력과 상관없이 함께 하기에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고 잠시 잊었던 배고픔이 노크를 할 무렵 식사를 하러 자리를 이동했다. 볼링대회의 점수와 볼링대회동안의 모습으로 1등 2등, 멋진 포즈상, 행운상 등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최고득점자는 정향란과장님! 중복시상은 안되므로 개인전 1등은 주장호과장님이 복분자주를 받았다. 송인보부장님과 정향란과장님은 하이볼러상으로 각각 문화상품권을 받았고, 게임 중 웃음을 준 펀(Fun)상은 인턴사원 오현정! 처음 볼링을 쳐서 계속 0,0,0... 을 기록하다가 드디어 핀을 쓰러트리고 첫 게임은 총점 15^^; 두 번째는 53점을 기록하였다. 멋진 포즈상은 만점짜리 자세로 볼링을 치신 이양성본부장님이 차지하였다. 행운상은 제비뽑기로 모두 하나씩 정답게 나누어 가졌다. 누가 잘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다 같이 웃고 떠들며 즐거웠던 시간, 즐거운 시상식이 끝이 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더욱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 하였다.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 사이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가고 업무로 만나는 관계가 아닌 오래된 벗처럼, 나아가 가족처럼 상대를 보살피 줄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 다정다감하고 이웃사촌 같은, 친구 같은 분위기를 함께 보내다보니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본부장님과 시간을 내어 함께 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다. <충청본부 오현정 기자>

